

가스공사, GS퓨얼셀 지분 매각

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자산 처분 ... 석유공사도 매각 나서

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연료전지 개발 전문기업 GS퓨얼셀의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.

가스공사·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출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대한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자산에 대한 공동 매각공고를 10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.

매각대상 자산은 출자회사 지분 30건과 토지 및 사택 등 부동산형 자산 234건, 골프 회원권 및 리조트 이용권 등 회원권 85건 등이다.

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09년 안으로 GS퓨얼셀 지분 17.58%를 GS칼텍스에게 매각할 방침이다.

GS퓨얼셀은 연료전지를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GS칼텍스의 자회사로 정부가 주관하는 2010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.

석유공사도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3.69%를 2009년까지 매각하고, 지역난방공사는 안산도시개발 등 자회사 지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지경부 관계자는 “사택과 콘도, 골프 회원권, 리조트 등 과도한 복리 후생성 자산과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 등 유휴 부동산을 대거 매각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”이라며 “확보된 매각금액은 적자 해소 및 투자 확대에 활용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07>